

## 의복 및 신체 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김 양 진·강 혜 원

연세대학교 의생활학과

### The Effect of Clothing Satisfaction, Body Cathexis, and School Achievement Related to Social Self-esteem

Yang Jin Kim and He Won Kahng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Yonsei University

(1992. 2. 6 접수)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 to investigate high school girls' overall clothing satisfaction and self concepts, 2)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lothing satisfaction and self concept in terms of body cathexis, school achievement and social self-esteem, and 3) to find out the social self-esteem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related to the high and low levels of clothing satisfaction, body cathexis as well as school achievement.

Body Cathexis was measured by the Secord and Jourard's Body Cathexis Scale. School achievement and social self-esteem were assessed with the modified questionnaires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es. Clothing satisfaction which included 3 aspects was measured by the questionnaires developed for this study. The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464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t-test, one-way-ANOVA and SNK test, Pearson's product moment correlation and factor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High-school girls' body cathexis showed low levels of mean and distribution, whereas school achievement and social self-esteem showed high levels of those. 2)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lothing satisfaction and all of the self concept variables. In addition, positive correlation were found among the three self concept variables. 3) Three clothing satisfaction factors were emerged and named as clothing possession, clothing selection ability and parent's clothing restriction. Clothing possession and parent's clothing restriction were generally satisfied. 4) School achievement wa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for the level of social self-esteem. It was thought that body dissatisfaction would be relieved by the high clothing satisfaction.

## I. 서 론

청소년기는 발달과정상 자아개념이 확립되어 가는 때이며<sup>1)</sup>, 급속한 신체의 성장, 사회성의 발달로 자신의 신체 및 외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 활동이나 대인관계에 적극 참여한다<sup>2)</sup>. 청소년기의 열등감 및 사회적 고립감의 원인들 중에는 신체 및 외모와 학업성적에 대한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현행 교육제도에서의 진학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학업성적은 청소년들에게 우월감 및 열등감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학업능력이 우수하다고 해서 사회성도 같이 발달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 중에서 더욱 심각한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

의복은 개인의 심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자신의 의복에 대한 만족도는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나 긍정적 자아개념과 관계가 있다<sup>3)</sup>.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의복에 대한 만족감도 높다<sup>4)</sup>. 의복만족도와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는 신체만족도와와의 관계를 본 것이 많으며, 신체적 자아외에 학문적 자아, 사회적 자아와 같은 자아개념의 다른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학업성취도 및 사회적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본 것은 적다. 또한 기존의 의복만족도 측정도구는 의복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불과 몇 문항에 포괄적으로 측정하고 있어, 의복만족도의 세부적인 실태를 알아보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의는 신체만족도외에 청소년기의 자아개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학업성취도 및 사회적 자아존중감과 의복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본 것과, 의복만족도를 몇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에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여고생의 의복만족도 및 자아개념의 전반적인 실태를 알아보고 둘째, 여고생의 의복만족도와 자아개념의 하위구성요소인 신체만족도, 학업성취도, 사회적 자아존중감과의 관련성을 밝히며 셋째, 의복만족도, 신체만족도 및 학업성취도의 수준에 따라 여고생 집단을 분류한 후, 각 집단의 사회적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비교하는데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자아개념

자아개념이란 한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각, 신념, 태도로 집약된다<sup>5)</sup>. William James<sup>6)</sup>는 최초로 자아(self)를 인지되는 객관적 자아와, 인지하는 주관적 자아로 나누었다. 객관적 자아는 경험적 자아(empirical self)로, 다시 물질적 자아, 사회적 자아, 정신적 자아로 구분된다. James의 이러한 자아개념은 개인과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며, 자기평가적 기능을 가지고 정서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Cooley<sup>7)</sup>는 면경자아이론을 소개하고 사회적 자아의 기본요소로서 자신의 외관, 자신에 대한 칭찬의 표상, 자부심, 수치심같은 자기가치 감정을 포함시켰다. Mead<sup>8)</sup>는 Cooley의 이론을 더욱 발전시켜, 일반화된 타자(generalized other)이론을 주장하여 자아란 사회적 전달(social communication)이 존재하는 사회적 장면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같은 일련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자아이론은 Kinch<sup>9)</sup>에 의해서 몇 가지 명제들로 정리되었다. ① 개인의 자아개념은 타인이 그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그의 지각에 근거한다. ② 개인의 자아개념은 그의 행동방향 결정에 영향을 준다. ③ 타인이 그를 대하는 것에 대한 그의 지각은 실제로 타인이 그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반영한다.

이외에도 Ryan<sup>10)</sup>은 자아개념을 자기 자신의 특성, 능력, 결점 및 외모에 대한 개인의 지각으로 보고 신체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로 구분했다. 이 중 신체적 자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외모에 대한 만족 또는 불만족에 대하여 다루어져 왔으며, 신체적 자아는 신체구조와 특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하였다. 정원식<sup>11)</sup>은 자아개념이란 한 개인의 생활의 장에서 자기 자신 및 그의 주변 환경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말한다고 정의하였으며, 자아의 구성요소로서 신체적, 도덕적, 성격적, 감정적 및 사회적 자아를 포함하였다.

### 2. 청소년기와 자아개념

청소년기는 자아상 확립의 중요한 시기로,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인 정체감확립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성격적인 부적응과 주어진 환경에 대한 부적응을 겪게 된다<sup>12)</sup>. 청소년기의 자아개념 형성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신체적, 학문적, 사회적 자아를 들 수 있다.

### 1) 신체적 자아

신체적 자아는 주관적인 것으로 객관적 사실에 관계없이 한 개인은 그의 신체적 용모를 주관적으로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 이상적 신체상은 문화적 기준과 고정관념을 근거로 하며, 실제로 신체영상(body image)과 개인의 이상적 신체영상이 결합될수록, 자신에 대한 긍정적 느낌과 높은 자아존중을 가지게 된다<sup>2)</sup>. Secord와 Jourard<sup>13)</sup>는 신체만족도를 자기자신의 신체 각 부위에 대한 만족도로 정의하고, 신체의 부분, 기능 혹은 과정에 대하여 지니는 만족·불만족도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했다. 그 도구를 사용한 최초의 연구에서 자신의 신체 각 부위에 대한 감정은 자아에 대한 감정과 일치하며 신체가 부상, 병, 기타 원인으로 고통받을 때 또는 불안한 경우에 신체만족도는 낮아졌다. 또한 의복구입시 고려되는 체중, 키, 허리둘레,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등의 실제계측치와 추측되는 크기는 신체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어 가슴둘레를 제외한 모든 부위의 크기가 작을수록 이상적이라고 생각되었다. 우리나라 여고 2학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sup>14)</sup>에서, 조기성숙집단이 만기성숙집단보다 불만도가 훨씬 높았으며 자아존중감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들의 신체적 자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여학생들은 신체가 작아지기를 원하며 외모 및 전반적인 신체적 매력에 더 큰 관심을 가졌으며<sup>15,16)</sup> 대체로 신체만족도가 낮고, 주로 하체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sup>17,18)</sup>.

### 2) 학문적 자아

교사가 평가한 점수는 학생들의 자아개념 형성에 큰 영향을 주어 학문적 자아개념이 긍정적일수록 학업성취도는 높아지고, 부정적일수록 낮아지게 된다<sup>19)</sup>.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자아개념 여하에 따라 거의 결정되며<sup>20)</sup>,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연구<sup>21)</sup>에서 학업에서의 성공이 자아개념을 고양시킨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Fink<sup>22)</sup>는 자아개념과 학습부진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고 하였고, Morse<sup>23)</sup>는 능력에 대한 자아개념이 I. Q.보다 학업성취도를 더 잘 예언해 준다고 하였다. 한편, 학업성취는 비학문적 자아와도 상관관계가 있었다<sup>24,25,26)</sup>.

### 3) 사회적 자아

김난수<sup>27)</sup>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기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대부분은 학급에서 이루어지고, 학생 상호간의 인간관계는 건전한 개인적 및 사회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며, 학급내의 교우관계에서 형성된 성격이나 사회적 습성은 그대로 유지되어 성인기의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준다. 중·고등학생의 자아개념과 동료간의 인기도는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고<sup>28)</sup>, 인기자와 고립자의 자아개념은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sup>29)</sup>, 중학생의 사회성 발달 수준에 따른 자아체감은 상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sup>30)</sup>. Gronlund<sup>31)</sup>가 인용한 Buswell과 Brown의 연구에서 사회성 측정지위가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의 학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 집단의 상호관계에서 타집단 성원에 의해 선택을 받든가 교우관계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학급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하며 이에 필요한 학업성적을 유지하게 된다. 박영란<sup>32)</sup>은 사회성 수준에 따른 귀속요인의 본포에서, 사회성 수준의 원인을 65.7%가 성격에, 3.1%가 외모에, 2.5%가 가정환경에, 24.3%가 학업성적에 귀속시켰다고 하였다.

### 3. 의복과 자아개념

의복은 개인의 가장 가까운 물질환경 및 자아의 외적 표현이며<sup>6,7,33,34)</sup>, 의복의 분석은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과정을 반영하므로 의복은 말을 대신하는 선행조건이다<sup>34)</sup>. Kaiser<sup>35)</sup>에 의하면 의복연구는 자아에 대한 몇가지 이론적 문제들을 조망할 수 있다. 즉 ① 의복은 가시적인 것으로 물질적자아의 일부본이다. ② 자아란 주관적(아는 자) 자아와 객관적(알려진 자) 자아를 포함하며, 이들은 모두 의복과 관련된 행동 및 태도로 설명된다. ③ 자아는 구조와 과정의 측면을 가지며 외모는 하나의 과정이다. 즉 우리가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하는 생각은 타인이나 다른 상황에서 작용하는 기능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된다. ④ 의복은 역할간의 상징적 이동을 가능하게 하며 각 역할에 적합한 의복을 입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수의 자아와 관련된다.

#### 1) 의복만족도

의복은 물질적 요소이나, 만족도는 개인의 심리적 경험이므로 생활의 외적조건이 반드시 내적만족도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Ryan<sup>10)</sup>에 의하면 의복만족도는 생활 전반의 만족도지수이며, 실제적 요소외에 의복의 특징이나 개인의 관심 및 가치관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며, 의

복에는 여러 특성이 있어 어느 한 면에 만족하더라도 다른 면에는 불만일 수 있다. Ryan<sup>10)</sup>에 의하면, Shannon의 연구에서 의복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은 감각적인 만족(외관, 색, 디자인, 질감), 적합성, 의복 사용시 만족감, 사용시 직물의 성질(초기 상태의 특성, 영구성, 손쉬운 관리, 구성의 편이성), 가격, 권위, 유행이며, 또한 Northeast Regional Research Projects에서는 만족도의 요소 중, 어울림, 안락감, 외모가 다른 요인보다 중요하였다. Mclean<sup>36)</sup>은 의복만족도에는 맞음새(fit)와 보임새(appearance)가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하였으며, 김용숙<sup>37)</sup>은 20대 여성들이 중요시하는 의복만족도 하위요인의 순서는 몸과 의복의 적합성, 의복의 걸모양, 의복의 사회심리적 역할, 의복재료의 성능, 의복구입의 용이도라고 하였다.

## 2) 청소년기와 의복만족도

청소년기는 자신의 신체와 용모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며, 이 시기의 불안 원인 중 중요한 것은 몸매나 얼굴에 결함이 있을 때이다<sup>1)</sup>. 옷을 잘 못입는 청소년들은 긴장감과 상실감을 가지며<sup>38)</sup>, 자신이 의복을 잘 입었다고 생각되면 사회적 상황에서 활동적이고 단체의 일원임을 자각할 수 있으나, 의복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면 자신을 방관자로 느낀다<sup>10)</sup>. 남녀청소년 모두 자신의 의복이 타인보다 나쁘다고 생각될 때 위축감을 느꼈으며 여학생이 더욱 그렇다<sup>39)</sup>. 전통적으로 의복은 부모와 자녀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여겨지며<sup>10)</sup>, 부모의 의복기준이 또래집단에 동조될 수 있는 의복과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의 의복불만이 발생함이 지적되었고<sup>40)</sup>, 옷의 선택시 부모의 영향력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된다<sup>41)</sup>. 여학생들의 의복행동은 동료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남학생들은 가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Francis<sup>43)</sup>에 의하면 고등학생들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구매 무능력과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의복부족지각에 영향을 미쳤다.

## 3) 신체만족도와 의복만족도

Sontag과 Schlater<sup>44)</sup>에 의하면 신체만족도는 의복과 관련된 자아개념 요소들 중 가장 자주 언급되는 요소로, 의복은 신체불만족을 보상하며 신체에 대한 만족·불만족은 의복에 옮겨져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 신체만족도는 20~29세에서 가장 낮는데 이는 젊은층이 이상적 체형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며<sup>36)</sup>, 우리나라 중년층 여성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의 만족도 사이에는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다<sup>45)</sup>.

## 4) 자아개념과 의복행동에 관한 선행연구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sup>46)</sup>,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의복의 심미성, 관리성은 높아지고, 흥미성, 심리적 의존성, 사회적 승인, 주의집중성은 낮아,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적인 승인에 대한 의존도는 적으나 옷을 아름답게 입고 경제적으로 관리하였다. 김미영<sup>47)</sup>의 연구에서는 자아수용성과 의복불만감 사이에는 부적상관이 있어 만족스럽지 못한 의복을 입었을 때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느끼며 자아수용성이 낮을 경우, 더욱 의복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 신옥순<sup>48)</sup>은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자기개념이 높으며, 자아정체감 하위척도 중 목표지향성, 대인역할기대, 자기수용, 자기주장, 대인관계의 수준이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자기개념도 높았다고 하였다. 김재숙<sup>49)</sup>은 의복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에도 만족하며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하였다.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가설 설정

연구의 가설은 1) 여고생의 의복만족도는 자아개념 하위변인(신체만족도, 학업성취도, 사회적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며 2) 의복만족도, 신체만족도,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각 집단의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 용어 정의

#### 1) 자아개념

한 개인에 대한 지각, 신념, 태도를 의미하며, 3개 하위변인을 포함한다.

**신체만족도**: 신체의 여러부분과 전체적인 외모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

**학업성취도**: 교과목의 성적 및 교육적 성과의 달성도.

**사회적 자아존중감**: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긍정적인 자기평가.

#### 2) 의복만족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의복의 가지수 및 가격, 의복의 모, 의복선택능력과 부모의 의복규제 측면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한다.

(1) 의복수/가격 : 의복의 가지수, 가격, 유명상표 소유정도등의 측면.

(2) 외모 : 의복을 입은 맵시, 의복외모의 측면.

(3) 선택능력 : 의복의 선택 및 조화능력의 측면.

(4) 의복규제 : 가정에서의 의복 규제 및 간섭의 측면.

**3) 의복관심도**

의복에 대한 관심 및 의복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도.

**3.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의복행동에 관계된 선행 연구들에 쓰여진 것과 연구자가 작성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의 Likert Type으로 '아주 그렇다'를 5점, '아주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환산하였다. 문항중 부정문은 반대로 환산하였다. 총 111문항으로

구성된 예비설문지로 서울시내 여고 2학년생 50명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예비설문지의 신뢰도 검정과 의복만족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문항과의 상관계수가 .35이하인 문항과 의복만족도 요인분석에서 어느 요인으로도 포함시킬 수 없는 문항들을 제외시킨 총 91문항으로 본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완성된 본설문지의 내용과 신뢰도 검정결과는 <표 1>과 같다. Cronbach's  $\alpha$ 값에 의한 신뢰도 점수는 모두 .83이상으로 높았다.

**4.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1) 조사대상**

임의 표본추출법에 의해 선정된 조사대상은 서울시내 4개 인문계 여자고등학교 2학년생 464명으로, 조사대상

<표 1> 측정도구의 내용, 출처 및 신뢰도 계수

변 인	출 처	문항수	계	Cronbach' $\alpha$
신체만족도	Secord & Jourard (1953)	17	19	.84
	연구자	2		
학업성취도	이학주 (1989)	18	20	.89
	연구자	2		
사회적 자아존중감	최정훈 (1971)	10	20	.88
	Piers-Harris (1964)	4		
	Coopersmith (1967)	2		
	정원식 (1968)	2		
	연구자	2		
의 복 만 족 도	임춘봉 (1974)	4	7	.90
	Francis (1990)	1		
	임춘봉 (1974)	1		
	연구자	1		
외 모	신옥순 (1977)	2	4	
	이경순 (1979)	1		
	김미영 (1982)	1		
선택능력	신옥순 (1977)	2	5	
	홍희숙 (1988)	1		
	임춘봉 (1974)	1		
	Shim (1991)	1		
의복규제	연구자	5	5	
의복관심도	홍희숙 (1988)	6	6	.83
인구통계적문항	학교, 계열, 성적 등	5	6	
합 계			91	

〈표 2〉 조사대상의 배경에 관한 분포

내 용	빈도	백분율
<b>학교 :</b>		
E여고	94명	20.3%
Y여고	109	23.5
D여고	107	23.1
S여고	116	25.0
기 타	38	8.2
계	464	100.0
<b>계열 :</b>		
인문계	236	50.9
자연계	228	49.1
계	464	100.0
<b>학업성적 :</b>		
상	219	47.2
중	172	37.1
하	54	11.6
무응답	18	4.0
계	464	100.0
<b>경제수준 :</b>		
상-상	4	.9
중	22	4.7
하	24	5.2
중-상	167	36.0
중	202	43.5
하	32	6.9
하-상	7	1.5
중	1	.2
하	1	.2
무응답	4	.9
계	464	100.0
<b>과의활동 :</b>		
교내 씨름활동	116	25.0
교외 비학원단체	24	5.2
교외 학원	94	20.3
취미활동 모임	15	3.2
스포츠 활동	12	2.6
종교단체 학생부	57	12.3
기타	72	15.5
무응답	74	15.9
계	464	100.0

의 배경은 〈표 2〉와 같다.

학업성적은 하(下)에 속하는 학생의 비율이 극히 낮

아, 결과분석시 집단간 학생수의 불균형에서 오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중과, 하에 속한 학생을 합하여 두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경제수준도 9단계로 나누어 측정된 결과, 하상, 하중, 하하의 비율이 극히 낮아(1.9%), 집단을 상(상상, 상중, 상하: 10.8%), 중(중상, 중중: 79.5%), 하(중하, 하상, 하중, 하하: 9.2%)의 3집단으로 재구성하였다.

2) 자료수집

예비조사는 1991년 8월 8일~13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본 조사는 1991년 9월 3일~10일 사이에 각 학교의 수업시간 중 490부의 설문지의 배부하여 15~20분동안 그 자리에서 즉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무성의한 응답 26부를 제외한 총 464부를 SPSS PC\*에 의한 전산 통계분석에 이용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전체적인 응답경향 분석

자아개념 하위변인의 응답분포는 하위변인간의 문항수의 차이때문에 평균점수를 각 문항수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그 결과, 신체만족도는 사회적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도에 비해 다소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내었다. 신체만족도에서 만족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낸 신체부위는 입, 얼굴색, 머리결, 어깨등이었고 불만족한 경향을 나타낸 것은 치아, 허리, 배, 엉덩이, 다리, 키, 몸무게로서 주로 하체와 체형에 관련된 항목에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변인에 대한 응답분포에서, 의복만족도의 점수범위는 41~105점(가능한 점수범위 21~105)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고, 의복관심도는 가능한 점수범위가 6~30인데 비해 응답자의 74.4%가 16~25점에 속하여 높은 경향을 보였다.

1) 계열에 따른 비교

응답자를 인문, 자연계열로 분류하여 두 집단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사회적 자아존중감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어, 의복관심도는 인문계가 더 높았으나 신체만족도, 학업성취도, 의복만족도는 자연계가 의미있게 더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2) 경제수준에 따른 비교

경제수준에 따른 상, 중, 하 세 집단의 차이에서 의복관심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그외의 모든 변인, 즉 신체만족도, 학업성취도, 사회적 자아존중감, 의복만족

<표 3> 계열, 경제수준, 성적에 따른 자아개념 및 의복변인의 차이 비교

n=464

	계 열			경제수준				학업성적		
	인문	자연	F값	상	중	하	F값	상	하	T값
신체만족도	54.15	56.63	7.05**	57.30 <sup>a</sup>	55.62 <sup>a</sup>	50.98	4.97**	-	-	-
학업성취도	62.01	66.87	28.50***	68.08 <sup>a</sup>	64.00 <sup>b</sup>	64.08 <sup>ab</sup>	3.66*	67.39	61.69	6.27***
사회적 자아존중감	-	-	-	71.54 <sup>a</sup>	70.01 <sup>a</sup>	65.58	5.47**	-	-	-
의복만족도	66.72	69.26	6.18*	73.59	67.92	61.82	13.06***	-	-	-
의복관심도	20.73	19.00	18.14***	-	-	-	-	19.42	21.30	2.12*

a, b : 같은 기호는 동질집단을 의미함. \*p<.05 \*\*p<.01 \*\*\*p<.001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만 제시하였음.

도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높은 경제수준 집단은 모든 변인에서 높았으며 낮은 경제수준 집단은 모두 낮게 나타났다.

3) 학업성적에 따른 비교

5개 변인 중, 의복관심도와 학업성취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의복관심도는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더 높았고, 한편 학업성취도는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더 높게 나타났다.

2. <가설 1>의 검증

1) 의복만족도와 자아개념 하위변인의 상관관계

<가설 1>의 검정을 위하여 의복만족도와 자아개념 하위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는 <표 4>와 같이, 의복만족도와 자아개념 하위변인인 신체만족도, 학업성취도,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모두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나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또한 자아개념의 3개 하위변인들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자아개념의 한 측면이 높으면 다른 측면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의복만족도가 신체와 관계되는 외모의 측면 뿐만 아니라 학업능력과 사회성의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고생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의복에 대한 만족감은 자아개념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2) 의복만족의 요인분석 및 문항의 분포경향

의복만족도를 구성하는 차원, 즉 하위요인을 추출하

<표 4> 각 변인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n=431

	의복만족도	신체만족도	학업성취도
신체만족도	.48***		
학업성취도	.40***	.34***	
사회적 자아존중감	.39***	.41***	.51***

\*\*\*p<.001

기 위하여, 주성분 방식과 베리맥스 회전법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복만족도의 하위요인으로 총 99.9%의 높은 설명력을 가진 3가지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앞서 의복만족도를 4가지 측면(의복수/가격, 외모, 선택능력, 의복규제)으로 나누어 측정 한 것과는 차이가 있어 외모 측면은 추출되지 않았다. 의복만족도의 3개 하위요인에 대한 분포경향은 소유의복과 의복선택능력의 두 요인에서는 중간정도의 만족도를 보였고, 부모의 의복규제 요인에서는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도출된 각 요인의 명칭 및 문항의 내용, 분포경향은 <표 5>와 같다.

(1) 소유의복 요인(요인 I)

소유의복의 가지수, 가격, 품질등에 대한 만족도로, 포함된 문항은 용도, 장소, 상황, 색상, 어울림에 관련된 의복의 가지수와 의복구매능력에 .56 이상의 부하량을 나타낸 8문항이며 총 분산비는 66.5%였다.

문항의 분포경향을 살펴보면, 57.1%가 원하는대로 옷을 입기에는 옷의 수가 부족하며, 45.5%가 때와 장소에 맞추어 입을 옷이 부족하고, 원하는대로 또는 때와

〈표 5〉 의복만족도 하위요인의 문항별 응답분포

n=464 단위 : %

요인명	문항내용	아주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아주 그렇지 않다
소유의복/요인 I	나는 내가 원하는대로 옷을 입기에는 옷의 수가 부족하다. (R)	9.5	47.6	24.8	14.9	3.2
	나는 때와 장소에 맞추어 입을 옷이 부족해서 불만이다. (R)	6.5	39.0	29.1	22.8	2.6
	우리집은 나에게 필요한 옷을 충분히 사주지 못해서 불만이다. (R)	3.4	22.0	30.6	33.6	10.1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이 나의 용도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4.3	23.1	34.5	36.6	1.5
	나는 나의 옷차림이 초라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 (R)	3.0	21.6	30.4	36.9	8.2
	나는 나에게 잘 맞는 색의 옷이 별로 없어서 불만이다. (R)	1.3	14.0	31.3	44.4	9.1
	내 옷들은 나에게 잘 어울리지 않아 속상하다. (R)	.2	18.1	31.9	43.8	6.0
	내 옷은 유명메이커 것은 없고 주로 싼 것이라 불만이다. (R)	—	1.9	14.4	61.9	21.8
의복선택능력/요인 II	나는 나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입을 줄 안다고 생각한다.	7.1	34.7	34.1	21.3	2.8
	나는 적절한 의복을 선택하는 능력이 있다고 자부한다.	6.0	34.1	39.9	19.6	.4
	나는 옷의 색을 조화있게 맞추어 입을 줄 안다고 자부한다.	7.8	24.8	42.9	22.0	2.4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세련되게 옷을 입는다고 자부한다.	2.4	13.1	50.4	32.8	1.3
	나는 옷을 입은 내 모습에 대해서 만족한다.	5.0	24.6	47.2	19.8	3.0
	친구나 이웃들은 옷을 살 때, 나를 좋은 조언자로 생각한다.	3.0	21.3	46.1	23.5	6.0
	내 옷들은 보기가 꽤 괜찮은 옷이다.	4.3	28.9	52.4	13.8	.6
	나의 옷들은 내 모습을 아름답고 돋보이게 해 준다.	2.2	19.4	49.8	26.1	2.6
부모의부규제/요인 III	어머니와 함께 옷을 사러가면 종종 의견충돌이 있어서 괴롭다. (R)	4.5	22.6	13.8	41.4	17.7
	옷을 살 때 엄마와 함께 가면 자유롭게 살 수 없어서 싫다. (R)	2.4	14.7	18.3	46.3	18.1
	부모님과 나는 좋아하는 옷이 서로 같아서 옷을 살 때 별 문제가 없다.	6.3	27.2	34.7	27.8	3.9
	나는 내 취향보다는 부모님이 좋아하는 옷을 입을 수밖에 없을 때가 많아 불만이다. (R)	2.6	9.5	12.5	48.9	26.3
	우리부모님은 나에게 요즘에 유행하는 옷을 못입게 해서 불만이다. (R)	1.3	8.2	19.6	54.5	16.4

R : 아주 그렇다에 1점, 아주 그렇지 않다에 5점을 주었음.

장소에 맞추어 입는 옷에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불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많은 학생들(43.7%~53.3%) 이 불만이 아니라고 응답한 문항들은 필요한 옷을 충분히 사주지 못해서 불만이다, 옷차림이 초라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 나에게 잘 맞는 색의 옷이 없다, 내 옷은 나에게 잘 어울리지 않는다였다. 또한 내 옷은 유명메이커는 없고 주로 싼 것이다에서는 83.7%가 이를 부인하였다.

### (2) 의복선택능력요인(요인 II)

의복을 착용한 맵시, 외모, 선택 및 조화능력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한다. 포함된 문항은 의복의 어울림 정도, 착용시의 자신의 외모, 선택, 착용하는 능력, 의복선택 및 착용에 대한 타인의 인정 등에 .53 이상의 부하량을

나타낸 8문항이며 총분산비는 21.8%이다.

분포경향은 41.8%가 나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입을 줄 안다고 생각한 것을 제외하고는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의복선택능력요인의 문항에서는 '보통이다'에 응답하였다. 자신의 의복선택, 착용 및 조화능력에 자신감이 없으며 이는 이 측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 (3) 부모의 의복규제 요인(요인 III)

가정에서의 의복규제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며, 포함된 문항은 의복구입시의 부모와 자신의 의견일치, 의복기호의 일치에 대한 만족정도, 의복에 대한 부모의 간섭 등에 .58이상의 부하량을 나타낸 5문항이며 총분산비는 11.6%이다.



부모님과 나는 좋아하는 옷이 서로 같아서 옷을 살 때 별 문제가 없다는 문항에는 비슷한 비율로 학생에 따라 다양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생들 (59.1%~75.2%)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문항들은 어머니와 옷을 사러가면 의견충돌이 있어 괴롭다, 옷을 살 때 엄마와 함께 가면 자유롭지 못해서 싫다, 내 취향보다 부모님이 좋아하는 옷을 입을 수 밖에 없을 때가 많아 불만이다, 부모님은 요즘에 유행하는 옷을 못입게 해서 불만이다 등으로 학생들은 의복선택 및 구입시 부모의 의견을 상당히 수용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의복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은 학생들이 자신의 의복선택능력에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도 할 수 있으며, 청소년기에는 의복이 부모와 자녀간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영역이라는 Ryan(1966)의 서술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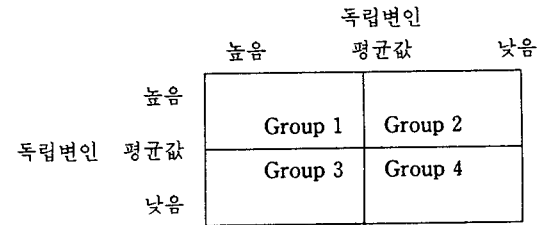
이상의 결과에서 전체적인 의복만족도는 높은 경우라도 각 측면(하위 요인)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불만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의복만족도를 측면으로 구분하여 측정된 것은 전체 의복만족도 합계점수만으로는 밝힐 수 없었던 만족도의 세부적인 차

이를 밝힘으로써 여고생들의 의복행동에 대한 이해와 이들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의생활을 누리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가설 2>의 검증

1) 의복만족도, 신체만족도,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집단 구분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변인을 2개씩 짝을 지워, 각 독립변인의 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라 각각 4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집단구분의 방법은 선행연구(Sirgy, 1982; Shim 등, 1991)에서 채택하였으며 독립



[그림 1] <가설 2>의 검정을 위한 집단구분의 도식

<표 6> 신체만족도, 의복만족도,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집단구분 및 집단명

신체만족도		의복만족도		학업성취도		집단명
높음	낮음	높음	낮음	높음	낮음	
√		√				B <sub>H</sub> C <sub>H</sub>
	√	√				B <sub>L</sub> C <sub>H</sub>
√			√			B <sub>H</sub> C <sub>L</sub>
	√		√			B <sub>L</sub> C <sub>L</sub>
√				√		B <sub>H</sub> S <sub>H</sub>
	√			√		B <sub>L</sub> S <sub>H</sub>
√					√	B <sub>H</sub> S <sub>L</sub>
	√				√	B <sub>L</sub> S <sub>L</sub>
		√		√		C <sub>H</sub> S <sub>H</sub>
			√	√		C <sub>L</sub> S <sub>H</sub>
		√			√	C <sub>H</sub> S <sub>L</sub>
			√		√	C <sub>L</sub> S <sub>L</sub>

B: Body Cathexis    C: Clothing Satisfaction    S: School Achievement  
H: high    L: low

변인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평균보다 큰 값을 갖는 집단을 '높음'으로, 평균보다 작은 값을 갖는 집단을 '낮음'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독립변인의 기준 평균값과 같은 값을 갖는 응답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제외된 응답자 수는 신체만족도와 의복만족도 집단구분에서 19명, 신체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서 20명, 의복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서 14명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체만족도/의복만족도, 신체만족도/학업성취도, 의복만족도/학업성취도의 독립변인 쌍에 따라 총 12개의 집단을 도출하였으며, 집단구분 방식을 도식화한 것은 <그림 1>과 같으며, 그 결과 도출된 집단은 <표 6>과 같다.

**2) 도출된 각 집단의 사회적 자아존중감 차이 검정**

변인 2개의 관계에 의한 각 집단의 사회적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고 일원변량분석으로 그 차이를 검정하였으며 4집단간의 실질적인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Students-Newman-Keuls 방법으로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3) 신체만족도/의복만족도 집단**

<표 7>은 신체만족도/의복만족도 수준에 따른 집단별 사회적 자아존중감 차이를 검정한 것이다.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4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어 SNK 검정 결과  $B_H C_H > B_L C_H, B_H C_L > B_L C_L$ 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신체만족도와 의복만족도가 모두 높은 집단이 가장 높았고, 둘다 낮은 집단이 가장 낮았으며, 신체만족도가 낮고 의복만족도가 높은 집단과 신체만족도가 높고 의복만족도가 낮은 집단간에는 차

이가 없었다. 따라서 신체와 의복 각각에 대한 만족감은 사회적 자아존중감 형성에 같은 비중을 차지하며 여고생들은 신체와 의복을 별개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되어 신체와 의복에 대한 불만은 동일한 차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신체만족도/학업성취도**

<표 8>은 신체만족도와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사회적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며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 순서는  $B_H S_H > B_L S_H > B_H S_L > B_L S_L$ 로서, 신체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둘다 높은 집단이 가장 높았고, 둘다 낮은 집단이 가장 낮았다. 또한 신체만족도는 낮고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이 신체만족도가 높고 학업성취도가 낮은 집단보다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이는 신체만족도와 학업성취도는 서로 다른 차원의 자아개념 요소이며, 사회적 자아존중감에는 신체외모보다 학업능력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의복만족도/학업성취도**

<표 9>는 의복만족도와 학업성취도의 수준에 따른 집단별 사회적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검정한 것으로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C_H S_H > C_L S_H > C_H S_L > C_L S_L$ 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의복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둘다 높은 집단이 가장 높았고, 둘다 낮은 집단이 가장 낮았다. 의복만족도는 낮으나, 학업성취도는 높은 집단의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의복만족도는 높으나 학업성취도가 낮은

<표 7> 신체만족도와 의복만족도 수준에 따른 집단별 사회적 자아존중감의 SNK 검정 결과

집단	$B_H C_H$ (n=155)	$B_L C_H$ (n=84)	$B_H C_L$ (n=67)	$B_L C_L$ (n=138)	F-ratio
평균	73.35	70.8	69.15	65.72	20.49***
집단구분	a	b	b	c	

a, b, c : 같은 기호는 동질집단을 의미함. \*\*\*p<.001  
 B: Body Cathexis C: Clothing Satisfaction H: high L: low

<표 8> 신체만족도와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집단별 사회적 자아존중감의 SNK 검정결과

집단	$B_H S_H$ (n=131)	$B_L S_H$ (n=86)	$B_H S_L$ (n=89)	$B_L S_L$ (n=139)	F-ratio
평균	74.96	71.57	67.62	65.29	37.27***
집단구분	a	b	c	d	

a, b, c, d : 같은 기호는 동질집단을 의미함. \*\*\*p<.001  
 B: Body Cathexis S: School Achievement H: high L: low

〈표 9〉 의복만족도와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집단별 사회적 자아존중감의 SNK 검정결과

집단	C <sub>H</sub> S <sub>H</sub> (n=145)	C <sub>L</sub> S <sub>H</sub> (n=74)	C <sub>H</sub> S <sub>L</sub> (n=94)	C <sub>L</sub> S <sub>L</sub> (n=137)	F-ratio
평균	75.09	70.77	68.34	64.76	41.94***
집단구분	a	b	c	d	

a, b, c, d : 같은 기호는 동질집단을 의미함. \*\*\*p < .001  
 C: Clothing Satisfaction S: School Achievement H: high L: low

〈표 10〉 신체만족도, 의복만족도,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집단별 사회적 자아존중감의 SNK 검정결과

집단	B <sub>H</sub> C <sub>H</sub> S <sub>H</sub> (n=102)	B <sub>H</sub> C <sub>L</sub> S <sub>H</sub> (n=28)	B <sub>H</sub> C <sub>H</sub> S <sub>L</sub> (n=46)	B <sub>H</sub> C <sub>L</sub> S <sub>L</sub> (n=38)	B <sub>L</sub> C <sub>H</sub> S <sub>H</sub> (n=39)	B <sub>L</sub> C <sub>L</sub> S <sub>H</sub> (n=45)	B <sub>L</sub> C <sub>H</sub> S <sub>L</sub> (n=43)	B <sub>L</sub> C <sub>L</sub> S <sub>L</sub> (n=90)	F-ratio
평균	75.37	73.46	69.04	65.97	74.23	69.02	67.47	64.09	19.14***
집단구분	a	a	b	b	a	b	b	c	

a, b, c : 같은 기호는 동질집단을 의미함. \*\*\*p < .001  
 B: Body Cathexis C: Clothing Satisfaction S: School Achievement  
 H: high L: low

집단보다 높아, 의복만족도보다는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학업성적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은 남학생에게 더욱 강하다는 Song과 Hattie(1984)의 연구결과가 여학생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고생의 사회적 자아개념 형성에는 학급친구들이나 교사, 부모가 영향을 미쳤던 박연숙(1989)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타인들에게 인정받고 수용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건은 학업성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려된다. 또한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모두 교복을 착용하고 있었으므로 학교에서 타인과의 의복비교에서 오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감소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사복을 착용하는 학생들이나 사회적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하는 준거집단이 다른 타 연령층에 실시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6) 3개 변인의 상호관계에 의한 사회적 자아존중감의 차이**

〈표 10〉은 신체만족도, 의복만족도, 학업성취도 3변인 모두의 수준에 따라 집단을 8개로 분류하여 3개 변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회적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검정한 것이다.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변량분석결과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가설 2>는 지지되었다. 또한 SNK 검정결

과, B<sub>H</sub>C<sub>H</sub>S<sub>H</sub>, B<sub>H</sub>C<sub>L</sub>S<sub>H</sub> 및 B<sub>L</sub>C<sub>H</sub>S<sub>H</sub>의 3집단이 가장 높은 동질집단이고, 다음이 B<sub>H</sub>C<sub>H</sub>S<sub>L</sub>, B<sub>H</sub>C<sub>L</sub>S<sub>L</sub>, B<sub>L</sub>C<sub>H</sub>S<sub>L</sub> 및 B<sub>L</sub>C<sub>L</sub>S<sub>H</sub>의 4집단이 동질집단이며, B<sub>L</sub>C<sub>L</sub>S<sub>L</sub>은 가장 낮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만족도, 의복만족도, 학업성취도 3변인이 모두 높은 B<sub>H</sub>C<sub>H</sub>S<sub>H</sub>와 학업성취도를 제외한 의복만족도 또는 신체만족도 중 하나가 낮은 B<sub>H</sub>C<sub>L</sub>S<sub>H</sub>, B<sub>L</sub>C<sub>H</sub>S<sub>H</sub>가 동일하게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자아존중감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학업성취도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의복과 신체에 대한 만족이 서로 보완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여 Sontag과 Schlater(1982)의 연구에서 의복이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로 인한 낮은 자아개념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사회적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중간인 것으로 나타난 4개 집단중, 신체만족도나 의복만족도가 높아도 학업성취도가 낮을 경우에는 중간수준의 사회적 자아존중감을 나타낸 것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학업성취도의 영향력을 재확인하고 있다. 또한 학업성취도가 높아도 신체와 의복에 대한 만족도가 둘다 낮은 경우(B<sub>L</sub>C<sub>L</sub>S<sub>H</sub>)에는 높은 사회적 자아존중감을 가질 수는 없었으며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외모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는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의복이 신체의 불만족을 보완함으로써 자아개념의 저하를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 V. 결 론

본 연구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자아개념과 의복만족도의 상호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의복의 심리적 기능의 중요성을 밝히고, 의복만족도의 구체적인 실태 파악과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아개념 하위변인(신체만족도, 학업성취도, 사회적 자아존중감)과 의복변인(의복만족도, 의복관심도)의 실태는 여고생의 신체만족도는 다소 낮으며, 하체 부위에 대하여 불만족하고 있었으나 학업성취도, 사회적 자아존중감, 의복만족도, 의복관심도는 모두 높았다.

2) 의복만족도는 자아개념 하위변인 모두와 정적상관관계가 있다.

3) 의복만족도는 소유의복, 의복선택능력, 부모의 의복규제의 3개 요인으로 분류되며, 문항별 응답분포에서 의복의 색상, 어울림, 품질 및 구매능력에는 만족하나, 용도 및 상황에 적절한 의복 가지수에는 불만이며, 의복선택능력에는 특별히 만족 또는 불만족을 나타내지 않으며, 부모의 의복규제에는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4) 신체만족도와 의복만족도가 모두 낮을 때에는 학업성취도가 높아도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낮고, 한편 학업성취도가 높으면, 신체만족도나 의복만족도 중 하나가 낮아도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높아,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은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고 다음이 신체만족도, 의복만족도로 같은 수준이다.

5) 외모(신체, 의복)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며 의복으로서 부정적인 신체적 자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1) 조사대상이 모두 교복착용자였으므로 사복착용에서 오는 영향을 밝히지는 못했으며, 2) 실제 성적과 신체 치수를 자료에 포함하여 응답자의 자기지각에 의한 응답결과와 비교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 참 고 문 헌

- 1) 장병림(1966), 청년심리학, 서울: 법문사.
- 2) 송인섭(1989), 인간심리와 자아개념, 서울: 양서각.
- 3) Hafstrom, J.L. & Duncing, M.M. (1973), Levels of living: Factors influencing the home maker's satisfaction, *HERJ*, Vol. 1, No. 2, pp. 119-132.
- 4) 이경손(1979), 성인남자의 자아개념과 의복행동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김기정(1984), 학업성취와 지각된 양육태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6) James, W. (1918),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Vol. 1, N.Y.: Dover publications, Inc.
- 7) Cooley, C.H. (1902), The social self: on the meaning of 'I',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Y. Charles Scribner's Sons.
- 8) Mead, G.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9) Kinch, J.W. (1963), A Formalized theory of the self-concep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68.
- 10) Ryan, M.S. (1966),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11) 정원식(1968), 자아개념검사 검사법 요강, 서울: 코리아 테스트 센터.
- 12) Schertzer, B. & Stone, S.C. (1974), *Fundamentals of counseling*, Boston: Houghton Mifflin.
- 13) Secord, P.F. & Jourard, S.M. (1953), The appraisal of body cathexis: body cathexis and the self, *J. of Consulting Psychology*, 17, pp. 343-347.
- 14) 권재선(1987), 신체적 성장속도 차가 불만수준 및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심리학회지, 15, pp.14-24.
- 15)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 esteem*, San Francisco: Freeman, 송인섭(1989), 인간심리와 자아개념, 서울: 양서각에서 인용함.
- 16) Mahoney, E.R. & Finch, M.D. (1976), The dimensionality of body cathexis, *J. of Psychology*, 92, pp. 277-279.
- 17) Jourard, S.M. & Secord, P.F. (1955), Body cathexis and the ideal female figure, *J. of Abnormal Social Psychology*, 50, pp. 243-246.
- 18) Calden, G., Lundy, R.M. & Schlafer, R.J. (1959), Sex differences in body concepts, *J. of Consulting Psychology*, 23, pp. 378-379.
- 19) 이하주(1989), 대학생의 학업성취 변인에 관한 연구 -부진자와 숙진자의 특성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 Lecky, P. (1945), *Self-consistency: a theory of perso-*

- nality, New York: Island press.
- 21) Marier, H.W. (1965), *Three theories of childhood development*, New York: Harper & Row.
  - 22) Fink, M. (1962), Self-concept as it relates to academic underachievement, *J. of Educational Research*, 13, pp. 57-62.
  - 23) Morse, R.J. (1963), Self-concept of ability, significant others and school achievement of eight-grade students: a comparative investigation of Negro and Caucasian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ichigan State Univ.
  - 24) Torshen, K.P. (1969), The relation of classroom evaluation to students' self-concep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 of Chicago.
  - 25) 김용래(1975), 학업성취도와 자아개념의 상관성 연구, 홍대논총, 홍익대학교, pp. 149-173.
  - 26) 이윤구(1986), 대학생의 자아개념과 학업성취와의 관계분석,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7) 김난수(1964), 민주시민 교육의 방법, 현대교육총서 출판.
  - 28) 정옥환(1982), 중·고등학생의 자아개념, 동료간의 인기도, 학업성취도간의 상호상관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9) 이영숙(1988), 인기학생과 피배척학생의 행동특성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0) 박연숙(1989), 중학생의 사회성 발달과 자아개념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1) Gronlund, N.E. (1959), *Sociometry in the classroom*, New York: Harper & Brothers.
  - 32) 박영란(1983), 사회성 측정지위, 자아개념, 귀속요인의 상호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3) Hurlock, E.B. (1978), *Development psychology*, New Delhi: Tata Mcgraw-Hill publishing Co., Ltd.
  - 34) Stone, G.P. (1961), *Appearance and the self*, in *Human Behavior and Social Processes*, An introductionist Approach, A.M. Rose (Editor), N.Y.: Houghton Mifflin Com.
  - 35) Kaiser, S.B. (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2nd ed.), New York: Macmillan.
  - 36) Mclean, F.P. (1978), The process of aging related to body cathexis and to the clothing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tah Univ.
  - 37) 김용숙(1984), 20대 여성들의 신체만족도와 의복만족도에 관하여, 호남대학논문집, 제 4 권, pp. 573-585.
  - 38) Kelly, A.E., Daigle, C.W., Lafleur, R.S. & Wilss, L.J. (1974), Adolescent dress and social participation, *HERJ*, Vol. 2, No. 3, pp. 167-175.
  - 39) 김병미(1975),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3권, 3호, pp. 233-247.
  - 40) 임춘봉(1974), 대학생의 자아개념과 의상행위와의 상관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1) 최정훈(1972), 지각형성검사 표준화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제 9 집, pp. 1-7.
  - 42) 홍희숙(1988), 자기모니터링과 의복태도 유행정보원 사용 및 유행의사선도력의 관련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3) Francis, S.K. (1990), Effect of economic stress on perceived clothing depriv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CTRJ*, Vol. 8, No. 4. pp. 1-10.
  - 44) Sontag, M.S., & Schlater, J.D. (1982), Proximity of clothing to self: evolution of a concept, *CTRJ*, 1, pp. 1-8.
  - 45) 이영운(1981), 중년기 여성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6) 김순구, 윤학자(1986), 자아존중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남·녀 고교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제10권, 1호, pp. 1-8.
  - 47) 김미영(1982), 연령과 사회계층에 따른 의복 불만족과 관련변인 연구 —자아수용성과 자·타위주의 의복착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48) 신옥순(1978), 자아정체감과 외모를 통한 자기개념 및 개성에 관한 의복 심리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9) 김재숙(1976), 여대생의 의복과 용모의 만족도가 사회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14권, 1호, pp. 1-7.
  - 50) Sirgy, M.J. (1982), Self-concept in consumer behavior: A critical review, *J. of consumer research*, Vol. 9, pp. 287-300.